

- 주요 뉴스: 미국 연준 의장 발언과 2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 금리경로 전망 영향에 주목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제어 위해 추가 금리인상 필요
 - ECB 총재, 3월 0.50%p 인상 예상. 근원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 지속 전망
 - 중국 전인대, 금년 5.0%의 성장률 목표 제시.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 추진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연준의 빅스텝 우려 완화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9%], 달러화 약세[-0.7%], 금리 상승[+1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 지수는 에너지 및 기술 관련주의 강세 등으로 1.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그 동안의 상승이 과도했다는 인식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8%, 0.5%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통화긴축 선반영 시각 등으로 주말 앞두고 상승폭 축소
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전망,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등으로 18bp 상승
- ※ 원/달러 환율(주간) 0.3% 하락, 한국 CDS 하락

주요지표					주요지표				
		3/3일	2/24일	전주말대비			3/3일	2/24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045.6	3,970.0	1.90%	국채금리 10y	미국	3.95%	3.94%	1bp
	유럽	464.26	457.70	1.43%		독일	2.72%	2.54%	18bp
	중국	3,328.4	3,267.2	1.87%		영국	3.85%	3.66%	19bp
	일본	27,927	27,453	1.73%	CDS 5y	한국	41bp	45bp	-4bp
	한국	2,432.1	2,423.6	0.35%		중국	65bp	74bp	-9bp
환율	달러지수	104.52	105.21	-0.66%	위험지표	EMBI+	390	383	-7bp
	유로화	1.0635	1.0548	0.82%		VIX	18.49	21.67	-14.67%
	엔화	135.87	136.48	0.45%		WTI유	79.68	76.32	4.40%
	위안화	6.9043	6.9601	0.81%	원자재	구리	407.8	395.2	3.19%
	원화	1,301.6	1,304.8	0.25%		금	1,856.5	1,811.0	2.5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연준 의장 발언과 2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 금리경로 영향에 주목

- 3/7일과 8일 연준 파월 의장은 의회 증언에 나설 계획. 이번 증언은 3월 FOMC를 2주 앞두고 진행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의원들은 금리인상 강도 및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관련 질문에 나설 것으로 예상(Bloomberg Economics)
-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양호한 경제지표가 발표된다면 금리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 다만 일부는 '24년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노동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미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칠 수 있다고 평가
- 한편 3/10일 2월 고용보고서가 공개.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3.4%를 나타내는 반면, 신규 고용은 21.5만건을 기록하여 전월(51.7만개)과 비교 시 감소할 것으로 관측
- 이번 고용보고서 결과는 노동시장 악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안정 노력에 긍정적(BofA의 Michael Gapen). 다만 연준이 이를 당장 통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지 여부는 미지수(Bloomberg Economics)
- CME의 FedWatch Tool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현재 4.50%~4.75%)는 6월 정점(5.25%~5.50%)에 이른 후 해당 수준을 계속 유지하다가 내년 3월에 -0.25%p의 첫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제어 위해 추가 금리인상 필요

- 데일리 총재는 금리를 추가 인상한 후에 상당 기간 해당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 또한 디스인플레이션의 모멘텀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며, 5.0%~5.5%의 최종금리를 지지한다고 부연
- 한편 보스턴 연은의 콜린스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금리인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 다만 금리 수준은 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 반면 지난 주 연준의 보우만 이사는 때로는 금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표명

■ 미국 정부,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대통령령 준비

-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 및 정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기술 등이 주요 규제 대상. 그 동안 일부에서는 미국의 투자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인공지능, 암호해독 등 안보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

■ ECB 총재, 3월 0.50%p 인상 예상. 근원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 지속 전망

- 라가르드 총재는 당분간 높은 수준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3월의 경우 0.50%p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 피력.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바슬레 총재 역시 3월 이후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언급

■ 중국 전인대, 금년 5.0%의 성장률 목표 제시.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 추진

- 3/5일 시작된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5.0% 내외의 성장률을 금년 목표로 제시. 이는 목표 제시가 시작된 1994년 이후 최저. 또한 맞춤형의 신중한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경제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고(2.8%→3.0%),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
- 일부에서는 이번 성장률 목표 제시가 중국 저성장 시대의 본격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평가. 한편 당국은 방위비 비중을 전년비 7.2% 늘릴 것이며 동시에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강화를 강조

- 과도한 대출 제한 등 신용관리에 좀 더 주의하도록 요구. 구체적으로 신용관리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마련하며 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출 억제에 나설 방침

■ 스리랑카, 중국이 대출을 연장. 외환보유액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

- 다르 재무장관은 중국 공상은행이 13억달러 규모의 대출 연장을 승인했다고 발언. 다만 파키스탄은 여전히 유동성이 부족하며, IMF 등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6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월 제조업수주, 유로존 2월 소매판매 및 3월 Sentix 투자신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또다시 뒤쳐진 연준, 앞으로의 정책결정은 딜레마 - 블룸버그

(What Now for a Fed That Has Fallen Behind the Curve Again?)

-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다음 금리인상 폭에 대한 관심이 확대. 일각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하방 경직성 심화를 나타내고 서비스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있어 0.50%p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 다른 한편에서는 통화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긴 시차가 있으므로 0.25%p 인상 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 이는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문제를 초래
-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연준의 손상된 입지에 또 다른 중대한 타격 예상. 0.50%p 인상은 이전 선제적 지침의 상당 부분 무효화를 의미. 또한 0.25%p 인상 유지는 일련의 예상 밖 비우호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

■ 미국 기업의 감원, 실적둔화 등으로 장기화되면 경기침체 유도할 소지 - WSJ

(Cuts at Amazon, Other Tech Companies Don't Spell Recession Yet)

-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기침체는 일부 경제부문의 활동 둔화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며 발생. 현재 국내 감원은 기술 관련 기업에 국한. 그러나 해당 기업들의 작년 4/4분기 이익이 전년동기비 크게 감소했으며 이를 고려한다면, 감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아울러 금리상승 등으로 주택경기 또한 부진
- S&P500의 11개 부문 중 9개 부문의 작년 4/4분기 이익이 전년비 감소했고, 이는 2/4분기까지 지속될 소지(Refinitiv). 이에 감원은 기술부문 이외의 기업들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금리인상 등으로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늘어날 우려(Moody's)

■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법, 유럽에는 국가통제 사례로 인식될 가능성 - Financial Times

(Joe Biden teaches the EU a lesson or two on big state 'dirigisme')

- 바이든 행정부가 39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초과이익 환수, 사내 보육시설 건립 등 엄격한 조건을 내걸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대. 일부에서는 반도체와 보육시설 확충은 상관관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육시설 제공이 근로자 부족 해결에 도움을 주어 첨단산업에 중요하다고 주장
- EU 국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정책을 이용한다며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상황.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의 산업 정책을 재고함과 동시에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 **중국 정부의 5.0% 성장률 목표 제시, 당국의 규제강화 신호를 발신 - 블룸버그**

(China's 5% GDP Target Signals Crackdowns Are Not Over)

- 최근 중국 경제는 강력한 성장회복 신호를 발신하고 있으며, 이에 경제학자들은 금년 성장률 예측치를 상향(4.8%→5.3%, 블룸버그 설문).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전인대를 통해 공개한 금년 성장률 목표(5.0%)는 역대 최저 수준. 이는 당국의 민간기업 통제 및 반부패 운동이 국영 금융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
-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정부의 부채가 급증. 이에 지방정부의 은닉 부채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 이는 국영은행의 대출 축소 및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출 감소를 초래할 전망. 이와 같은 정부의 낮은 목표성장률 및 규제 리스크 등은 기관투자자 유치도 어렵게 할 것으로 관측

■ **미국 회사채 투자, 경기침체 우려와 스프레드 확대 가능성 등으로 신중할 필요 - WSJ**

(Why Some Investors Are Still Waiting for Discounts on Corporate Bo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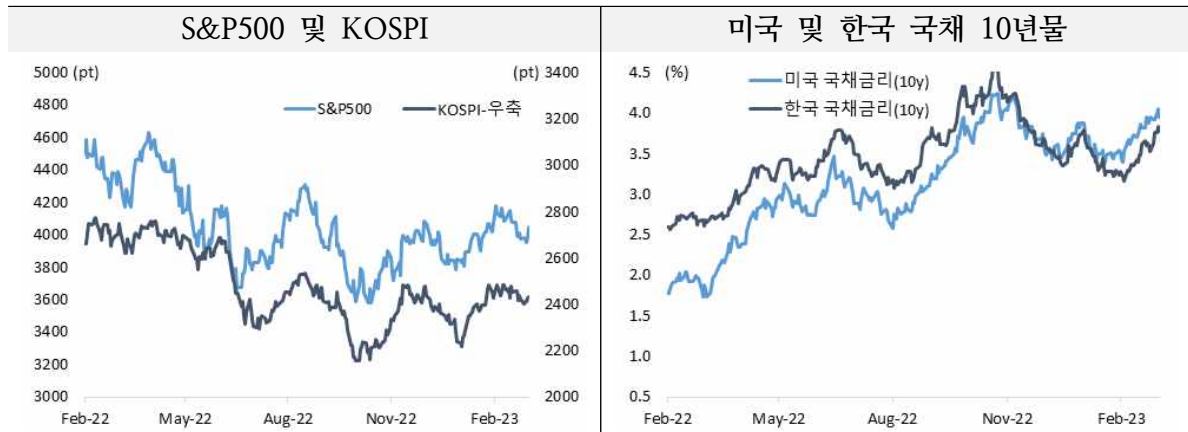
■ **아시아 일부 국가의 금리인상 중단, 지속 여부는 불확실 - 블룸버그**

(Asia's Very Complicated Interest-Rate Pa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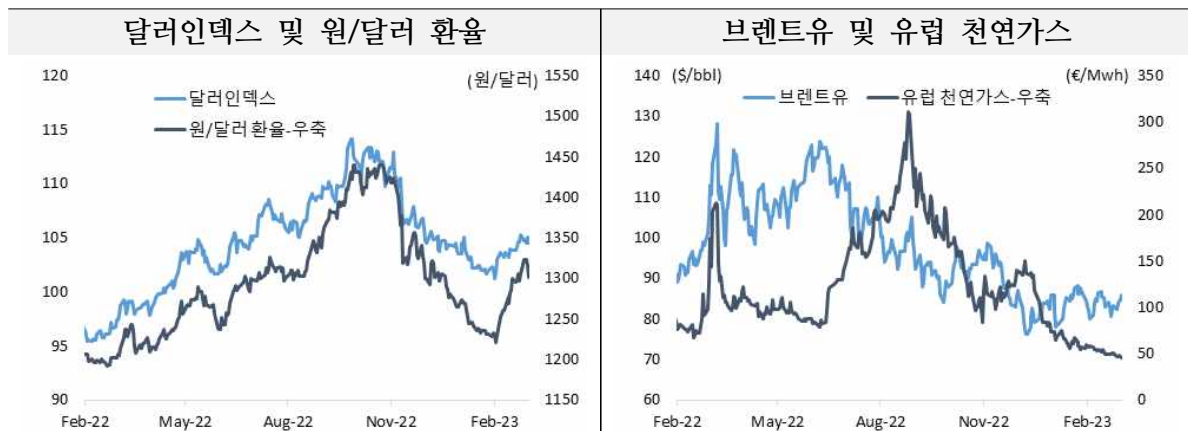
■ **국제 유가, 중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하반기 배럴당 100달러 도달 가능 - 블룸버그**

(Forget Peak Oil Demand: A Thirst for Barrels Puts \$100 in View)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